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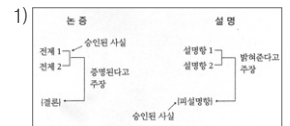
논증 글쓰기

우리는 말이나 글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로 구성된 담론을 흔히 논증(argument)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논증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는 집에 일찍 가야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편찮으시기 때문이다.”라는 담론은 ‘주장+이유’로 구성되어 있지만 논증이 아니라 설명이다. 이는 일종의 맥락의 문제이다. 이유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있는 주장은 논증의 대상이며, 단지 이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주장은 설명의 대상이다.¹⁾

증명의 대상인지 설명의 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는 해당 주장의 참이 승인된 것인지(이 경우 설명) 그렇지 않은지(이 경우는 논증)에 따라 판가름된다. 주장의 참에 대한 승인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으므로 그때그때마다의 맥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주장은 가설이며 따라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주장을 이미 증명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경우도 자주 있다.

가령, 어떤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서평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하자. 그 책의 저자는 이미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며, 따라서 책을 읽는 독자는 저자의 주장을 증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주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평을 쓸 때 책의 내용을 요약하려 하는 것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진화론에 관한 책이라고 가정해 보자. 진화론은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한 다윈에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논증은 전제의 승인된 사실을 이용해서 결론을 증명하는 반면, 설명은 피설명항의 승인된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맥락없이 제시된 글은 경우에 따라서 논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설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박은진·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p.434).

의해 창시되었으며, 이 학설에서는 돌연변이, 선택, 변이와 같은 개념이 중요하다. 먼저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과 같이 설명될 수도 있지만, “생명체는 왜 변화하는가? 무엇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인가? 새로운 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양한 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면……”과 같이 좀 더 논증적인 방식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²⁾ 이때 논증은 보다 역동적인 독서, 보다 역동적인 글쓰기와 관련된다.

이처럼 논증이란 독서 혹은 글쓰기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1) 핵심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뭘 주장하고자 하는가? 나보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 (2) 내가 왜 그 주장에 동의해야 하는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 (3)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그런 이유를 내세우는가? 그 이유들이 타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어떤 근거가 그런 이유를 뒷받침하는가?
- (4)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 (5)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았는가? 누군가 ~라고 말하면/주장하면/반대하면/설득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당신과 다른 견해를 인식하고 있는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³⁾

우리가 어떤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해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의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질문의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의 내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으로서의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관련된다. 문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가령, 토론이나 리포트의 주제로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곤 하는 안락사나 낙태라는 주제가 주어진다면, 그 주제 그대로를 글의 문제로 설정하기보다 “생명과 죽음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혹은 “낙태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와 같

2) J. A. 알트, 『꿀통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참토론』, 김태환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2, p.44.
3) J. 윌리엄스 · G. 콜럼, 『논증의 탄생』, 윤영삼 옮김, 홍문관, 2009, pp.62-63.

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문제는 개념 문제와 실용 문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구체화한 문제 중 전자의 경우를 개념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리고 실용 문제라 할 수 있는 후자는 “현 상황을 바꾸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또 전자는 현실에 관해 뭔가를 말해 주는 정보적 진술에 의해, 후자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기술적 진술에 의해 답해진다.

〈표〉 문제해결 논증과 문제제기 논증의 구성⁴⁾

구 분	문제해결 논증	문제제기 논증
서론	(도입부) (공감대) 불안정조건 손실 해법/주장	(도입부) (공감대) 불안정조건/주장
본론	(전제) 해법을 뒷받침하는 이유 반론 수용/반박	(전제) 손실(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반론 수용/반박
결론	해법/주장 재진술	(해법 암시)

모든 논증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위의 표와 같이 논증에는 문제해결 논증과 문제제기 논증이 있다. 전자는 어떤 불안정 상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장하려 한다면 후자는 어떤 것이 문제임을 주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3), (4)의 질문은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관련된 것들이다. 주장과 이유를 결론(conclusion)과 전제(premise)라고도 부른다.⁵⁾ (2), (3), (4)에서 주장은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고 이유는 다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체 논증은 어떤 원칙(전제)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어떤 논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 ① 주장은 무엇인가?
- ②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④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전제(warrant)는 무엇인가?

4) 위의 책, p.138.
5) 박은진 · 김희정, 앞의 책, p.123.

근거는 사실 혹은 자료를 지칭한다. 엄밀히 말하면 근거는 논증의 외부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근거 자체가 아니라 근거에 대한 보고를 이용하며 이는 논증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같은 근거라 해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① 이 책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것이다. ②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③ 지난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한국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⁶⁾

①이 저자의 주장이라고 할 때, ②는 부연설명인 동시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이며, ③은 ②를 뒷받침하는 근거들 중 하나로 기능한다. 곧,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갈등과 이익을 대표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를 밑돌기 때문이다. 위의 논증에는 하나의 이유와 하나의 근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보다 많은 이유와 근거가 요청된다. 이유와 근거는 대등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병렬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인과의 순서나 추론의 순서에 따라 직렬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②와 ③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명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이유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민주주의에 관한 최소정의적 접근(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춘 정치체제)은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토크빌이 보았던 것처럼 정치의 체제이기보다 ‘사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저자의 진술 같은 것이 위의 논증의 전제가 된다.

어떤 논증이 전제의 틀 안에서 이유와 근거에 의해 주장이 뒷받침되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 곧 (5)와 같이 예상되는 독자의 반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글을 쓰게 될 저자가 준비 단계부터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저자의 글을 읽게 될 독자 역시 곳곳에서 질문을 던질 것임에 틀림없다. 독

6) 최장집, 『민중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p.17.

자의 반론에는 다음의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① 논증 자체의 타당성을 의심한다. 주장, 이유, 근거, 전제가 틀리지 않았는가?
- ② 논증 자체에는 오류가 없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주장, 다른 이유, 다른 근거, 다른 전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글을 쓰는 도중에 혹은 초고 상태의 글을 누군가에게 실제로 읽히고 그에 대한 논평을 얻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또 실제의 독자가 타당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저자가 독자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논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논증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논증을 보다 사려 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론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제시함으로써 논증을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①과 같은 반론이 수용할 만한 것이라면, 저자는 자신의 논증 내에서 이유와 근거를 보강하고 전제를 보다 보편적일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다. 한편, ②와 같은 반론이 수용할 만한 것이라면, 저자는 적절한 시점에서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 전제에 대한 반론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주장에 대한 반론, 그 반론에 대한 반박, 다시 그 반박에 대한 반론,……과 같이 독자의 반론과 저자의 반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수준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멈출 수 밖에 없다.

모든 반론에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반론이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논증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만에 하나 반박할 수 없는 반론, 곧 그로 인해 논증이 아예 허물어질 수도 있는 반론과 마주친다면 그 논증은 버리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예상되는 반론을 통해 자신의 논증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나마 논증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작업이다.⁷⁾

결국 논증이란 글을 쓰는 저자가 어떤 주제에 대한 끈질긴 질문을 통해 문제를 만들어 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물론 저자의 주장 역시 다른 독자들에게 의해 질문될 수밖에 없으며, 저자의 주장이나 전제에 대해 독자가 끝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해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답을 찾고 이를 증명해가는 논증(의 태도)을 포

7) J. 윌리엄스 · G. 콜럼, 앞의 책, p.296.

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논증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에 대해 논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제안이 그나마 합의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

구 분	세부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	사회계열: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인문계열: 문학 / 역사학 / 철학 논문 작성법
외국인 학생 대상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한국어 논문 작성의 실제

[시 기] 시기: 4월, 10월 (매학기 1회 개최)

[신 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